

# “윤 정부 지자체 재정에 관심은 있나”

민주당 지도부·단체장  
간담회에서 윤 정부 맹폭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들이 처한 재정 위기를 등한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양승조 전 총남지사·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강기정 광주시장 등도 함께 참석해 지방 정부 재정 상황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9월경 59조1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하자 건전재정을 공표하고, 내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최소 15조5000억원의 지방재정 지원금을 삭감했다.

그러나 지자체 중 19곳이 통합재정안 정화기금이 바닥났으며 68곳의 지자체도 잉여금이 없는 상태다. 이에 지방정부들은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강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방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바뀌었다. 국가를 털어서 빛내라는 주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도 “사실 경기 침체에 따라서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란 건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지만, 굳이 감세 정책을 취하면서 정부 재정도 어려워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김관영 전북지사 등이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그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다”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정부들은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처해있다”며 “정부 여당이 과연 지방정부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개탄했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양승조 전 총남지사도 “지역경제가 몰락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에 온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

실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도 “내년 공무원 연금의 2개월치 및 연가 보상비를 미편성한 지자체가 있을 정도다”라고 폭로했다.

아울러 구청장은 713명의 전국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설문 조사 결과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회복해야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꼽았음을 전했다.

이러 정원오 구청장은 이들이 지역사회 상품권 발행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포함 청년 예산 회복,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선정 예산 복구를 희망하고 있음도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서울시·대전·대구·광주·부산 같은 데는 자산 매각

을 통해서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도, 광주시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예산 편성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달라”라며 “저희들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싶은데 행안부의 권고나 여러가지 불매 지방채 발행이 팍 차 있다. 지난해와 올해 지방채 발행을 약 7000억원을 발행했고, 내년에는 2800억원을 발행해야 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세수 결손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 중 가장 끔찍머리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라도 정부에서 부담해달라”라고 하소연했다. **홍정윤 기자**

총선 D-130일... 너도나도 ‘출판기념회’  
부천시 후보군 얼굴 알리기  
유권자 미리 만나 ‘정책 홍보’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천시 지역 각 진영의 후보군이 출사표를 앞세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열고 후보 알리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를 지역예 출사표를 던진 김기표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가 저서 ‘그 여름의 결심’을 출간하며 24일 오후 4시 한국문화박물관 1층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기표 변호사는 전남 보성출신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이사, 법무법인(유) 한빛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이어 같은 당 소속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부비서관은 자신의 저서 ‘희망의 정치를 짓겠습니다’를 출간하며 29일 오후 5시 한국문화박물관 1층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부비서관은 전북 진안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전 국무총리 정부비서관, 전 국회의원 정책기획비서관, 제8·9대 경기도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또 국민의힘 부천시를 당협위원장

서영석 위원장은 저서 ‘부천 체인지! 서영석!’을 출간하며 다음달 3일 오후 2시 한국문화박물관 1층 출판기념회 및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영석 부천시를 당협위원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를 수료하고 한국청소년미래연맹 이사장, 한국청소년미래연맹이사장, 한국평생사회교육개발원이사장과 현재 국민의힘 부천시를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정재현 전 부천시의원도 저서 ‘70-2번 타고 국회로 간다’를 출간하고 다음달 3일 오후 1시 부천 역곡동 모퉁이돌 마을카페서 출판기념회 개최할 예정이다.

정재현 전 시의원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휴학,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 7·8대 부천시의원, 부천시장 비서팀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에 출정 예정인 이진태 변호사는 저서 ‘대장동의 진실’을 출간하고 다음달 9일 오후 3시 서울신학대학교 존토마스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진태 변호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대학 졸업, 이재명 당 대표 특별보좌역,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전 의정부지검 교양지정장, 법무법인 우송 부천분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강성열 기자**

## 인천 축구 발전 방안 모색에 힘 보태

신총식 인천시의회 의원  
정책 발굴 정당희서 약속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총식(국민의힘, 서구4) 위원장이 인천축구 발전을 위해 엘리트 교육 강화 방안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신총식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축구협회 주최로 인천시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인천축구협회 발전·정책 발굴 정당희서’에 참석해 지역 내 초·중·고교 전문 축구팀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당희서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축구협회 정태준 회장 및 협회 관계자, 지역 내 초·중·고교 지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당희서에서 한 지도자는 “중학교 졸업생 140명 중 약 30명 정도만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장전입을 통한 타시·도 이적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 내 팀으로 많은 선수가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도자는 “일반 클럽팀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조례상 영리 목적대관 사용 불가능한 클럽 소속 전문 학생 선수들의 훈련 기지 박탈”이라며 “전문 축구팀 대상 운동장 사용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고민을 털어냈다.

이어 초등부 한 지도자는 “올해 인천 초등부 대표 선발 선수 16명 중 1명을 뺀 나머지 15명의 선수가 타 시도로 진학한다”며 “인천 선수들이 다른 시도 선수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실력이다. 이 선수들이 지역에서 성장해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인천축구협회 관계자는 “타 시도는 조례상 지역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의 소속 팀, 지역 동호인 팀, 일반 시민 등 순으로 우선 순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타 시도 조례를 살펴보고 다방면에서의 조례 개정의 적합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또 “인천의 축구 발전을 위한 인천축구협회 임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준상 기자**

## 하태경 서울 종로 출마 선언

“수도권 승리 견인차”  
혁신위 힘지 출마 응답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정치 1번지’ 격인 종로구에 출마 선언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종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라며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하 의원은 “우리 당이 항상 수도권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수도권 민심의 자랑스러운 지지와 선택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다”며 “하지만 종로에서 패배하면서부터 우리 당의 수도권 의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국회 과반 의석수도 급격히 무너졌다. 이것이 종로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이유”라고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인요한 국회 혁신위원장은 ‘당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 종로구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지도부·윤해관·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힘지 출마 권유 후 답을 기다리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4200여 명이 참석한 산악회 모임으로 세 과시하며 민 위원장의 권유를 거절했으나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당과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지 제 역할을 아끼지 않

을 생각”이라며 이를 수용했다.

하 의원은 ‘탄탄한 부산 해운대구’를 떠나 종로구 출마를 결심하자 인 위원장이 “용이 있는 도전”이라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출마 선언 직후 만난 기자들이 “종로는 쉬운 지역구는 아니지만 힘지라고 할 수 없다”고 묻자 “총선 분위기가 리셋됐다. 세 번에 걸쳐 민주당이 차지한 지역이다. 지난 보궐선거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었고 지난 총선 기준으로 볼 때 종로도 격전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하 의원은 “한동안 법무부 장관의 종로구 출마가 거론된다는 질문에는 “현역이든 아니든 누구와도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다. 한 장관과 경쟁하면 아름다운 경쟁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하 의원은 “총선 전략을 생각하면 전국 선거를 도울만한 간판이 되는 사람도 거의 없다”며 “한 장관이 오면 우

리 당의 다양한 분을 도울 수 없어 한 장관이 지역구에 메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한 장관의 비례대표 출마를 희망했다.

종로구는 이준석 전 대표 체제 당시 혁신위원장을 역임한 최재형 국회 국회의원의 지역구로 그는 이 전 대표와 비교적 가까운 사이로 인식된다.

최 의원은 본지의 통화에서 “최근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와는 어떻게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전 대표도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내년 총선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라며 “결국 선거 승패는 수도권에서 결정될 텐데, 그중에서도 종로구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정윤 기자**

### 경기도의회 소식

#### 전국 최초 체육인 기회소득 촉구

황대호 의원



가 체육인 기회소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운을 뗀 후 “제도의 취지인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만큼 절차상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황 부위원장은 “일반화해서 보자면 비인기종목 선수의 선수 생활 지속과 은퇴선수의 재사회화는 운동선수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전제한 뒤 “체육인 기회소득은 운동선수에게 활동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전문 자산을 도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라고 역설했다.

#### 수출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근거 마련

김도훈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국민의힘, 비례·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 지원 사업’에 ‘도내 FTA통상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은 3만1350개 사로 전국 수출 중소기업 중 31%를 차지, 지역 경제활동의 근간이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이 부족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신

#### 프리랜서 지원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신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민주당, 화성4·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프리랜서 권의 보호 지원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프리랜서 지원에 따른 각종 정책의 심의·자문을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노동 형태로 인해 노동권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황 부위원장은 “최근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를 소홀히 하는 문제

바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기존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의 일률적 적용을 어렵다”며 프리랜서 지원 사업의 특별함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전문성 등을 높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조례안의 상임위 가결 이후 “경기도가 프리랜서 지원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구성해 프리랜서 권의 보호 안전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정경제과는 조례 개정에 앞서 공정경제위원회 신규 과제로 “경기도형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고도화”를 제안했으며 프리랜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인창 기자**